

활에 있어서 학업성취를 제외한 다른 심리적·사회적 변인들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점차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재고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학교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또래나 교사들과 맺는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에 매우 중요하며, 자아존중감도 학업수행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스트레스와 같은 학생의 개인내적인 변인들도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으나, 특정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의 다양한 측면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기엔 미흡한 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비행, 학업성취, 또래관계문제 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대표하는 변인들을 성별, 연령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고,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얼마나 잘 예측해주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청소년기는 대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로 인식되어져 왔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어진 주요한 심리적 사회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겪는 정서적 위기나 격변은 오히려 정상적인 성격통합에 필요한 일이며, 행동문제와 같은 청소년기의 부적응 문

제도 어느 정도 이 시기의 정상적인 발달특성의 일부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Blos, 1962; Erickson, 1968; Freud, 1958; Powers 등, 1989). 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곧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치료되기보다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었다(정현희, 1997).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크게 정서문제 영역, 행동문제 영역, 대인관계 영역, 학업 성취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정서 및 행동문제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정서적 부적응에 관한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가족의 기능에 문제가 있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학업성취가 저조할 때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됨을 알아냈다(Kandel and Davis, 1982; Santrock, 1996). 예컨대, Puig-Antich(1993)은 우울증 청소년집단과 정상 청소년집단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형제관계, 또래관계, 학업성취 등의 영역을 비교해 본 결과, 각각의 영역에서 우울증 청소년집단이 정상 청소년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울증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들은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이 짧고, 또래로부터의 인기가 없으며, 수줍음을 더 많이 타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학교에서 행동문제를 보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섭, 1997). 우울증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정상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특히 읽기, 철자 및 산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은 학교에서 행동문제를 보일 확률이 있어서 더 높았으며, 교사들도 이들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대표적 행동문제의 한가지인 품행장애는 발병연령이 낮고,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 등 성인기 삶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정신질환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청소년의 학교적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품행장애는 유전적인 취약성, 인지 및 신경심리학적 결함, 만성적인 질환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유발 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소로는 아동기의 전조증상, 가족문제, 지역사회내의 위험요인 등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아동이 품행장애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들로는 지능,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학교적응, 교과외 활동 등이 있다(Rae, Grant, Thomas, Offer, and Boyle, 1989). 아동기 초기의 부모와 아동간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의 정서상태에 감정이입을 잘 하게끔 하며, 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의 필수조건이 된다. 반면에 공격적인 아동들은 다른 이들의 좌절을 적대감으로 잘못 지각하게 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Dodge, 1983). 아동이 잘할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외 활동, 지역사회내의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친사회적인 또래친구, 학업에서의 성공, 책임감 및 자기-규제를 익히게 해주는 학교환경 등은 품행장애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razek 등, 1994; Rae Grant 등, 1989).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Doll(1996)은 아동이 맺는 또래관계가 학교 내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래관계가 아동의 학업적 혹은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경고해주며,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

히 친구가 없는 외톨이 아동은 또래와의 행동문제나, 사회인지적 과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제한된 정서표현,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의 자신감 저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한된 참여 등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는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정도가 학생의 심리적 적응 여부를 반영해주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Stringe와 Glidewell(1967)은 학업성취와 정신증후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학업 성적에 의해서 약 2/3의 정신건강 증후를 예언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4-5년간에 걸친 계속적인 성공은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하나, 성적저하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적합의 경험이 지속되면 정신건강이 불안정성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Carroll, 1969). Crystal 등(1994)은 최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공격성, 신체화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성취수준과 학생의 심리적 부적응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교사와 친구관계를 맺어주는 사회관계의 장인 동시에,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곳이므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적응, 대인관계, 시험 및 과제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많다(Elias, 1989). 연구자들은 오랫동안의 임상적 관찰에 근거해서 스트레스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정신질환을 야

기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이주은, 1995).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들 중 저조한 학업수행, 불면증, 성문제, 약물남용, 과도한 불안, 신경증, 낙담, 그리고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나아가 신경증이나 우울장애, 성격장애, 정신분열증적 장애, 자살시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트레스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직접적인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King 등(1993)은 전반적인 자기-가치감 및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자기-가치감과 특정한 자기-지각이 증진됨으로써 우울증이 향상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 입원 환자의 전반적인 자기-가치 점수가 정상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청소년 입원환자 집단 내에서는 전반적인 자기-가치에 대해 높게 평정한 집단일수록 우울증 증상이 덜 심각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자기-가치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균형된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이끄는 주요 요소이다. 아동기 전반 및 청소년 초기에서는 부모를 통한 지지가 가장 중요하게 지각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청소년의 인성, 사회기술, 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서 부모보다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해진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또래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

났다(O'Brien, 1990). 이 연구에서 또래 친구는 모든 영역에서 형제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재정적 지지, 장래 및 직업계획, 개인적 가치 등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모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antrock, 1996).

한편, 교사 등 친밀한 어른들과의 관계는 사회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지각은 불안정한 과도기적 발달 단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서 이들이 일상 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끔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Birch와 Ladd(1997)는 학교 적응에 있어서 아동의 학교 수행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학교에 대해 갖는 정서와 태도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정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동들은 학교 환경을 더욱 지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이 학급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학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급내의 학습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학교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조사는 19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 사이 중·고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220명, 여학

생 952명 등 총 2172명의 학생에게 이루어졌으며, 조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별로 교사를 통해 실시한 후 곧바로 회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작업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2.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몇가지 문항과 아울러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우울척도

우울은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의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역학연구소-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간의 우울증상을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남정자, 조맹재, 최은진(1996)이 한국의 성인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는 .91로 양호하였으며, .85에서 .90을 보고하였던 원저자의 신뢰도 계수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문제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Asher, Hymel, 그리고 Renshaw(1984)가 개발한 "아동용 외로움 척도(Children's Loneliness Scale)"를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만족감을 평가하고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행경험 질문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발(화장)이나 복장단속, 가출, 절도행위, 무단결석 등을 포함한 비행 경험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문제를 일으켜 교무실에 불려간 일이 있는지, 두발이나 복장단속에 걸린 적 있는지, 가출을 한 적이 있는지, 학교를 무단결석한 일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에서 '5번 이상'까지 4점 척도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자아존중감

개인이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키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1965)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5) 스트레스

청소년이 학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해림(1985), 변영주(1995) 등의 척도를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과 관련된 문항이 11개,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항이 11개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과 관련

된 하위척도의 경우 신뢰도 계수는 .83이었고, 교우관계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6) 교사에 대한 태도 질문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태도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을 존중해주는지, 내가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신경을 써주는지, 학생들을 편애하는지 등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7)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정도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학생들의 전과목 평균점수를 90점 이상(6점), 80-89점(5점), 70-79점(4점), 60-69점(3점), 50-59점(2점), 49점 이하(1점)의 6단계로 나누어 학생들로 하여금 표기하게 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기술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총 조사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2172명으로 남학생이 전체의 56.2%인 1220명, 여학생은 43.8%인 952명이었다.

학교급별에 따른 비율을 보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56.4%으로 1226명,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43.6%인 946명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7.6%, 2학년과 3학년이 17.9%, 20.9%이고, 고등학교 1학년, 2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 목	빈 도 (%)	
성별	남자	1220 (56.2)
	여자	952 (43.8)
학교급별	중학교	1226 (56.4)
	고등학교	946 (43.6)
학년별	중1	382 (17.6)
	중2	389 (17.9)
	중3	455 (20.9)
	고1	475 (21.9)
	고2	471 (21.7)
	경제적수준	상류층
	중상류층	478 (22.2)
	중류층	1256 (58.3)
	중하류층	298 (13.8)
	하류층	58 (2.7)
전체		2172 (100)

학년 학생이 각각 21.9%, 21.7%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8.3%이었고, 중상류층이 22.2%, 중하류층이 13.8%, 상류층이 3.1%, 하류층이라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7%였다.

2.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 적응 비교

1) 성별과 학교적응

연구대상 집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비행, 우울, 학업성취, 또래문제 등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비행($t_{2158} = -7.06$, $p < .001$)에서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우울($t_{2099} = 8.30$, $p < .001$), 학업성취($t_{2133} = 5.85$, $p < .001$)와 또래문제($t_{2140} =$

표 2. 성별에 따른 학교 적응

	남	여	t
비행	10.82(3.22)	9.89(2.79)	-7.06***
우울	1.74(.52)	1.95(.58)	8.30***
학업성취	3.07(1.35)	3.43(1.50)	5.85***
또래문제	2.24(.71)	2.30(.66)	2.15*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01$

2.15, $p < .05$ 에 있어서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각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학교급별과 학교 적응

학교급별에 따른 비행, 우울, 학업성취, 또래문제 등 학교적응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우울($t_{2099} = -2.11$, $p < .05$)에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학업성취($t_{2133} = 5.19$, $p < .001$)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각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비행과 또래관계문제에 있어서는 학교급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적응

	중학교	고등학교	t
비행	10.42(3.10)	10.40(3.04)	.21
우울	1.81(.55)	1.86(.57)	-2.11*
학업성취	3.46(1.39)	3.13(1.48)	5.19***
또래문제	2.25(.70)	2.29(.68)	-1.33

()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01$

3.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 및 인구학적 변인들과 학교적응간의 상관

인구학적 변인들 중 사회경제적 수준은 학업 및 친구스트레스, 비행, 우울, 또래문제 등과는 부적의 상관을, 자아존중감, 친구수,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학업 및 친구스트레스는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비행, 우울, 또래문제 등의 학교적응 지표들과 과도 중등도의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 및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업성취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비행, 우울, 또래문제 등의 학교적응 지표들과 중등도의 부적의 상관을, 학업성취와는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비행이나 우울,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는 적은 경향이 있었다.

4.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인구학적 변인, 학업 및 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5).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성별과, 나이, 사회경제수준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넣어 학교적응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학교적응 변인중 비행의 2%, 우울의 5%, 학업성취의 4%, 또래관계문제의 4%를 설명해주었

표 4. 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친구수와 학교 적응간의 Pearson 상관계수

	사회경제 수준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친구수	교사 관계	비행	우울	학업 성취
사회경제수준	--								
학업스트레스	-.06**	--							
친구스트레스	-.06**	.52**	--						
자아존중감	.20**	-.14**	-.20**	--					
친구수	.05*	.03	-.05*	.08**	--				
교사관계	.08**	-.34**	-.03	.12**	-.02	--			
비행	-.08**	.20**	.06**	-.14**	.04	-.21**	--		
우울	-.13**	.30**	.34**	-.44**	-.06**	-.12**	.14**	--	
학업성취	.16**	.11	.01	.22**	-.03	.09**	-.30**	-.12**	--
또래문제	-.19**	.09**	.28**	-.45**	-.21**	-.10**	-.03	.47**	.05*

* $p < .05$, ** $p < .01$, *** $p < .001$

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학생들의 학업 및 친구관계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로 공식에 넣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얻어진 R^2 값은 비행의 경우 $R^2 = .07$, 우울이 $R^2 = .17$, 학업성취가 $R^2 = .06$, 또래문제에서는 $R^2 = .11$ 로 증가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친구수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를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 값은 비행의 경우 $R^2 = .10$, 우울이 $R^2 = .29$, 학업성취가 $R^2 = .10$, 또래관계문제에서는 $R^2 = .28$ 로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학교적응 변인 중 비행의 경우는 학생의 성별이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학생일수록 비행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생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교우관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경우에는 교사와의 관계와 친구수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느끼는 교우관계의 어려움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 수가 적을수록,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학교 적응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수	비행		우울		학업성취		또래관계문제	
		β	t	β	t	β	t	β	t
1	성별	.15	6.70***	-.19	-8.43***	-.13	-5.97***	-.05	-2.10*
	나이	.05	2.34*	.03	1.39	-.07	-3.12**	.01	.57
	사회경제수준	-.07	-2.98**	-.12	-5.36***	.16	7.26***	-.19	-8.73***
	R^2	.029		.050		.048		.040	
2	성별	.16	7.22***	-.14	-6.71***	-.13	-6.00***	-.01	-.32
	나이	.02	.85	.00	.17	-.05	-2.24*	.02	1.04
	사회경제수준	-.06	-2.64**	-.10	-4.70***	.16	7.14***	-.18	-8.32***
	학업스트레스	.22	8.41***	.17	6.84***	-.12	-4.79***	-.08	-3.31**
	친구스트레스	-.03	-1.24	.23	9.29***	.04	1.67	.31	12.35***
R^2	.068		.166		.059		.113		
3	성별	.16	7.24***	-.11	-5.44***	-.15	-6.96***	.02	.91
	나이	.01	.53	.05	2.36*	-.08	-3.48**	.05	2.67**
	사회경제수준	-.03	-1.26	-.02	-.90	.11	5.10***	-.09	-4.64***
	학업스트레스	.15	5.72***	.14	5.85***	-.11	-4.17***	-.12	-4.98***
	친구스트레스	-.02	-.94	.18	7.71***	.08	3.03**	.25	10.96***
	자아존중감	-.12	-5.40***	-.37	-18.40***	.23	10.03***	-.38	-18.73***
	친구수	.05	2.13*	-.02	-1.24	.02	.69	-.16	-8.35***
	교사관계	-.12	-5.27***	.00	.00	-.01	-.24	-.07	-3.05**
R^2	.098		.292		.104		.283		

* $p < .05$, ** $p < .01$, *** $p < .0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울, 비행, 학업성취, 또래관계문제 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대표하는 변인

들을 성별, 연령별 및 학교급별로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이들 학교적응 지표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요인들이 학교적응을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비행, 우울, 학업성취, 또래관계문제 등 학교적응 전반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우울과 또래관계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취의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정서문제와 같은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해온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Levinshon 등, 1991; Nolen-Hoeksema & Girgus, 1994).

우울증 청소년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들이 성인기에까지 유사한 문제로 이어짐을 밝혀 왔다. 최근의 장기 종단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급성적 문제는 부정적인 또래관계 등과 같은 상황특정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 만성적인 문제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Kendel & Davis, 1986). 본 연구에서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적응에 있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우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와 같은 상황특정적인 특성에 보다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변인과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나 우울 및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를 적게 보이고 학업성취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학교공부에서 뿐 아니라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쌓는 시기이므로,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및 친구수를 결정짓는 것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적응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교사와의 관계와 부적인 상관을, 우울 및 비행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울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문제를 보이기 쉬움을 나타내준다. 이와 관련하여 Elias(1989)는 학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가 학습촉진, 경쟁, 평가, 시험에 따른 결과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해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 변인 중 비행의 경우에는 학생의 성별,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순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교우관계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스트레스, 연령, 친구스트레스의 순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생이 느끼는 교우관계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친구수,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수준, 교사와의 관계, 연령 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적응 문제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과 관련

요인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적응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갈수록 도와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Jessor, 1991). 예컨대,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모든 형태의 학교적응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비행에 제외한 모든 학교적응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비행과 또래관련 문제에 대해, 그리고 친구수는 또래관계와 관련된 적응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적응 문제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개입한다면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과 또래관계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적응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오늘날 우리의 학교장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학교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학업 이외의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는 기존의 교육방법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효능감으로 전반적인 자기긍정과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또래들과의 집단활동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 기술 증강 등의 대인관계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적응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볼 때,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전달과 지도편달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도 염두를 두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적응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취약함을 알고, 이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남정자, 조맹재, 최은진(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영주(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민섭(1997). 아동·청소년기 장애. 삶의 문제와 적응의 심리학 : 법문사.
- 이주은(1995). 스트레스와 지원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현희(1997).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예방. 한국심리학회지, 16(1), 98-119.
-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D. (1984). Loneliness in Child,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irch, S.H., & Ladd, G.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Blos, P.(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ew York: Free Press.
- Carroll, H. A.(1969). *Mental Hygien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Crystal, D.S., Chen, C., Fuligni, A.J., & Stevenson, H.W.(1994).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A Cross-Cultural-Study of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 High-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5, 738-753.
- Dodge, K.A.(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ll, B.(1996). Children Without Friend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School Psychology Review*, 25, 165-183.
- Elias, M. J.(1989). School as a source of stress to children: An analysis of casual and ameliorative influenc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7(4), 393-407.
- Erickson, 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ud, A.(1958). *Adolescence*. I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13).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andel, D.B., & Davis, M.(1982). Epidemiology of depressed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Kandel, D.B., & Davis, M.(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ing, C.A., Naylor, M.W., Segal, H.G., Evans, T., & Shain, B.N.(1993). Global Self-Worth, Specific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745-752.
- Lewinsohn, P.M., Rohde P., Seeley, J.R., & Hops, H.(1991). The comorbidity of unipolar depression: I. Major depression with dysthym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205-213.
- Mrazek, P. J., Haggerty, R. J. Ed.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Powers, S. I., Hauser, S. T., & Kilner, L. A.(1989).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200-208.

- Puig-Antich, J.(1993). The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Family Environment of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244-253.
- Rae-Grant, N., Thomas, B.H., Offord, D.R., & Boyle, M.H.(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262-26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trock, J.W.(1996). *Adolescence(6th ed)*. Dubuque, I.A. : Brown & Benchmark.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Kyung-Ah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Hyun-Hee 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represented by depression, delinquency, school achievement and peer problems. Participants were 2,172 stud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each student was asked to complete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and academic stress, among various psychosocial variables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consistent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ll of the areas in school adjustment. Peer-related stress was related with all school adjustment measures except delinquency, and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variable was related exclusively with delinquency and peer problem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how to develop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nd how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school system in Korea.